

2024년 9월 30일 전북 2024 - 56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10월 1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30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4년 3/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정원석, 조사역 이슬빈

Tel : 250-4082, 4083 Fax : 250-4095 E-mail : jeonbuk@bok.or.kr

“한국은행 전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붙임1)

##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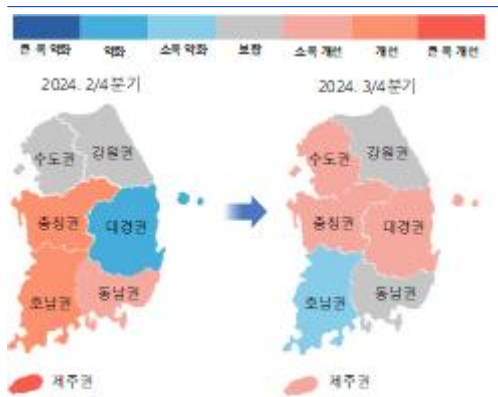
### (1) 개황

#### 전북 경기 소폭 악화

2024년 3/4분기 중 전북지역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포함 수준이고 서비스업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의 경우 소비, 건설투자 및 수출은 소폭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4분기 중 전국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제주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호남권은 소폭 악화되었다. 동남권, 강원권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권역별 경기<sup>1)</sup>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 (2) 생산

#### 제조업 생산 포함

2024년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포함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철강, 기계, 비금속제품 등은 감소하였고, 제지, 금속가공제품, 음식료품 등은 포함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버스생산은 환경부 예산 증가로 수소전기버스 생산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트럭생산은 내수부진 지속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전기차용 승온히터<sup>1)</sup>, 브레이크 부품 및 공조제품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전자부품의 경우 방산용 센서 및 AI 가속기용 동박적층판<sup>2)</sup>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이 소폭 확대되었다. 화학제품은 폴리에스터 단섬유 관련 수요 증가 및 분체도료<sup>3)</sup> 관련 신규 수요 확보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전기장비의 경우 2023년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확보 물량이 2/4분기부터 매출로 나타나면서 생산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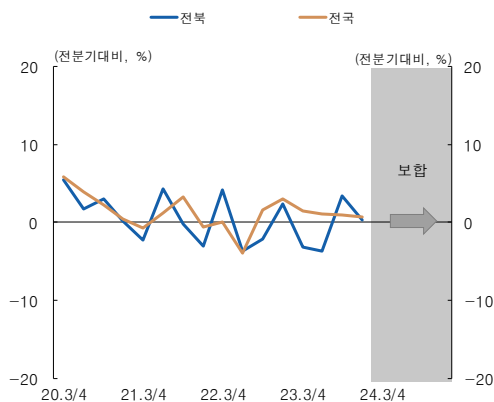
반면, 철강의 경우 2/4분기 성수기 효과 및 제품단가의 상승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3/4분기에는 조업일수 감소, 여름철 전력비용 증가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생산이 소폭 감소했다. 기계는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 부진 지속 및 미국·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건설기계 수주가 급감했다. 비금속제품은 건설업 둔화로 인해 판유리 생산이 감소했고,

- 1) 전기차 배터리 승온시스템에 포함된 부품인데, 배터리 승온시스템은 배터리를 승온시켜 혹한기 충전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2) 두산 전자BG는 지난해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관용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올해 4/4분기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용 동박적층판 양산에 들어간 가운데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을 시작한다. 동박적층판은 구리를 얇게 편 박막(동박)을 여러 장 겹쳐 놓은 것으로, 절연 역할을 하는 레진과 충격을 흡수하는 보강기재를 결합한다.
- 3)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분말도료로서 공장폐수에 대한 환경오염의 염려가 적은 장점이 있다.

주류 판매 부진 등으로 이와 연관된 유리병 생산이 소폭 감소했다.

제지의 경우 전력수급상 수요관리 차원에서 일부 조업단축이 있었으나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 금속가공제품의 경우 수소차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소차 보조금 집행 및 지자체별 상용 수소차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수소탱크 생산이 보합수준을 유지하였다. 음식료품의 경우 음료는 맥주 수요 감소로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식료품은 일부 제품의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여 음식료품 전체로는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생산을 이어갔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4/4분기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수소전기버스의 증산 등을 통해 생산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부품은 브레이크 부품 등을 중심으로 내수판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차용 승온히터 생산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글로벌 경기 및 수요산업 부진의 지속 등이 예상되어 큰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나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주받은 CASK(사용 후 핵연료 운반저장용기) 공급이 매출로 나타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속가공제품의 경우 수소차 생산목표 상향조정 및 지자체의 상용 수소차 확대정책 지속으로 차량용 수소탱크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료품은 연말 성수기 수요증가로 인해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장비의 경우 생산효율이 높은 연료전지 양산 및 수주물량 납품 지속 등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학제품은 내수의 경우 수요 감소로 생산이 늘진 않겠지만 수출은 중동지역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3/4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지는 국내외 제지수요 부진이 지속되어 생산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기계의 경우 글로벌 경기부진 및 미 대선의 불확실성 등으로 생산량이 이전 분기와 유사한 보합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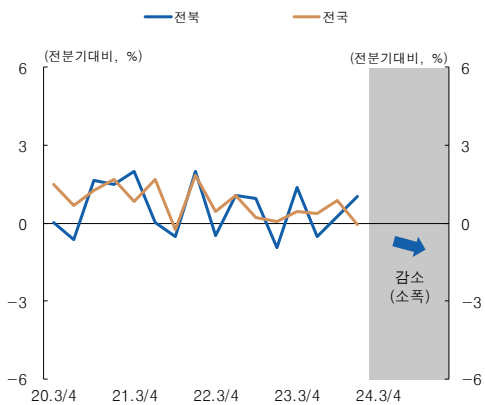
비금속제품은 건설업 둔화 지속 및 중국의 탄소섬유 관련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2024년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하였고, 부동산업과 운수업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도소매업은 경기 둔화, 고물가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대형 소매점의 경우 백화점은 일부 고가 품목 위주로 판매 부진이 이어져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나가면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재래시장은 폭염 등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 판매는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전분기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갔다. 숙박·음식점업은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폭염으로 야외활동도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시장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운수업은 관광객수 감소<sup>4)</sup>로 여객수송량이 더디게 회복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절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소비 심리 회복

이 지연되면서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염 등 일시요인이 해소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sup>5)</sup> 등 도내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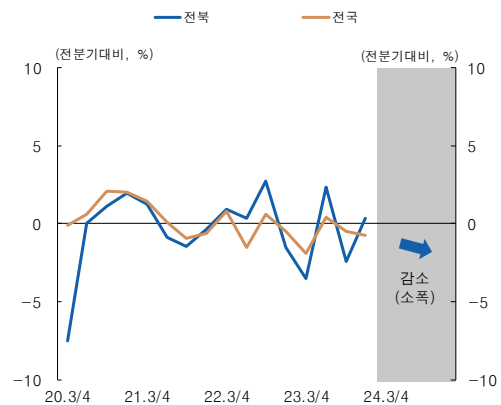
## (3) 수 요

### 소비 소폭 감소

2024년 3/4분기 중 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화소비는 고물가 지속으로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준내구재는 의류·잡화,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소비가 줄면서 감소하였다. 내구재는 레저용품 등의 판매는 줄었으나 폭염으로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도소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절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절은 한국은행 자체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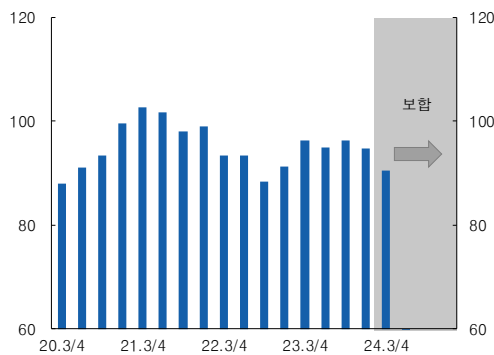
4) 7월 중 전북 방문자수는 751만명으로 2/4분기(월평균 786만명)보다 4.5% 감소하였다(한국관광 데이터랩).  
 5)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며 국내외 3,0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 2024년 4/4분기 소비는 고금리로 인한 가계의 소비 제약이 지속되면서 3/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포함

2024년 3/4분기 중 설비투자는 2/4분기대비 포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학제품의 경우 정기적인 설비유지보수 공사가 지속되었다. 비금속제품은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이 지연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업황 부진 등에 의해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없는 상황이다.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는 유지보수 정도의 설비투자가 지속되었다.

####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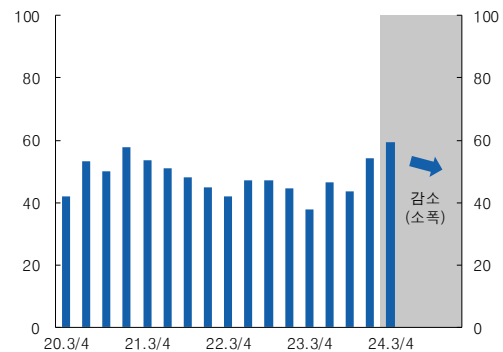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8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4/4분기 설비투자도 전분기와 유사한 포함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자부품의 경우 동박적층판 생산확대를 위해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업종에서는 전방산업 부진 등으로 당분간 유지보수 수준의 설비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건설투자 소폭 감소

2024년 3/4분기 중 건설투자는 공사비 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2024년 4/4분기 건설투자는 원자재값 상승, PF 대출요건 강화, 미분양 누적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겠으나 국내 금리인하의 기대로 인해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8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수출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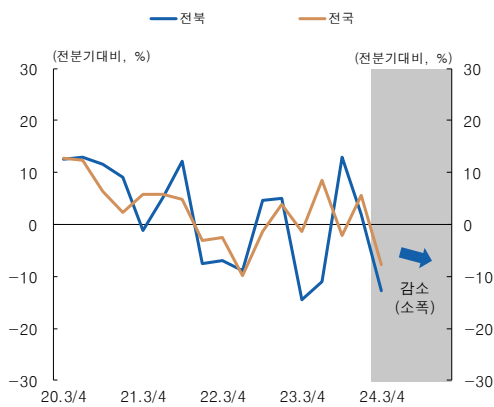
2024년 3/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 비금속제품, 철강제품 등이 소폭 감소하였고, 화학제품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기계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우크

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건설기계시장이 위축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비금속제품 및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중국경쟁업체들의 저가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화학제품은 분체도료 관련한 중동지역 수요 확보를 통해 수출이 증가했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8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2024년 4/4분기 수출은 방산 및 AI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을 제외하고 이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의 경우 글로벌 경기 및 관련 수요산업이 이전 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이 보합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은 상용차 부문 글로벌 대기수요 부진으로 3/4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자부품은 방산용 센서, AI 반도체용 핵심소재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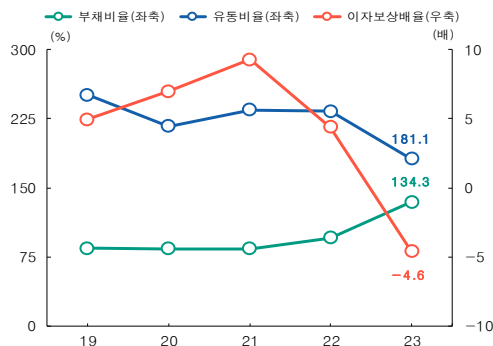
(붙임2) 현장리포트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점검

최근 전북지역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도내 중견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권을 반납<sup>6)</sup>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건설사들이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sup>7)</sup>하면서 지역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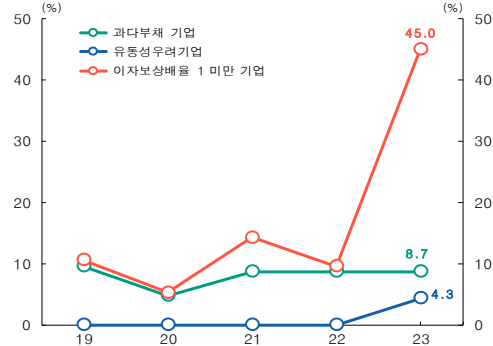
전북지역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은 2022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주요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sup>8)</sup>한 결과, 이자보상배율과 유동비율이 전년 말 대비 하락하고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등 이자지급능력, 유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지표가 악화되었다. 이자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경영난으로 영업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sup>9)</sup>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북지역 건설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 주요 종합건설업체 재무지표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재무건전성 취약 기업의 비중



주: 1) 부채비율 200% 상회  
2) 유동비율 100% 미만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또한 업체들의 미수금 증가 및 대여금 회수 불확실성으로 단기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도내 23개 건설업 외감기업의 미수금(2023년 말 기준)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도 추가 적립됐다. 이에 전북 주요 건설사는 보유 자산의 유동화 계획을 공시<sup>10)</sup>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건설업 대출잔액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건설업 연체율은 2021년 말 0.95%에서 2023년 말 1.96%로 1.01%p 상승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체율 상승폭은 전국(+0.74%p, 0.86% → 1.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건설업의 대출잔액, 연체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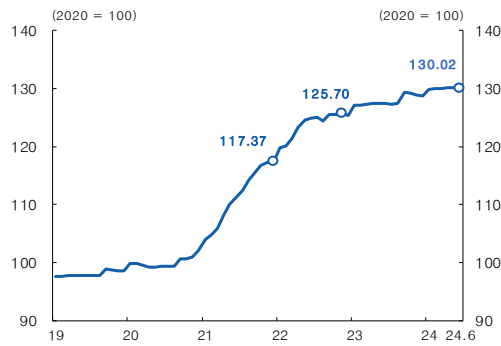
지역	구분	2021년 말	2023년 말
전북	대출잔액	2.08조원	2.42조원
	연체율	0.95%	1.96%
전국	대출잔액	302.73조원	385.38조원
	연체율	0.86%	1.60%

자료: NICE평가정보

6) 2024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 전북 2위인 계성건설이 전주시 옥상경기장야구장 사업권을 포기(2024.5월)하였다.  
7) 2024.5월 성전건설(2024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전북 12위, 전국 409위), 합동건설(전북 34위, 전국 702위)이 각각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8) 2024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 전북지역 상위 50위 이내 종합건설사 중 23개의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9)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유동비율이 100% 미만, 혹은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10) A건설사는 미수금, 장단기 대여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534억원의 보유 자산을 올해 중으로 유동화할 계획을 공시하였다.(2024.4월)

이러한 건설사 부실은 건설공사비 상승과 전북 분양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하며, 이는 향후에도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우선 비용 상승이 지속되면 수익성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비 관련 분쟁도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1)</sup>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평판 훼손으로 추가 수주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건설공사비 지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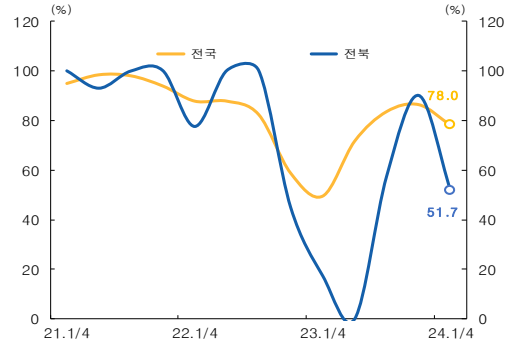


주: 1) 2024.6월 수치는 잠정치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진한 도내 분양 상황도 건설사의 자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북지역의 초기 분양률<sup>12)</sup>이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sup>13)</sup> 또한 주택보급률<sup>14)</sup>과 자가점유율<sup>15)</sup>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거주 목적의 잠재수요가 낮아 분양률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건설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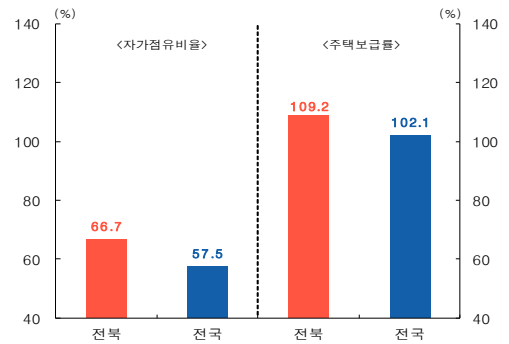
- 11)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수주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미 수주한 단지라도 시공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전북 중앙신문, 2024.6.12일)
- 12) 분양을 개시한 지 3~6개월이 경과한 아파트의 총 공급 가구수 대비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가구수의 비율이며, 전북 지역의 초기 분양률은 2024.1/4분기 기준 51.7%로 전분기(90%)에 비해 38.3%p 하락하였다.
- 13) 전북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는 2024.6월 기준 198호로 전년동기(71호) 대비 179% 증가하였다.
- 14) 총가구수 대비 주택호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 15)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한다.
- 16) 전북도는 올해 예정된 5.2조원 규모의 신규 공공공사 발주 중 지역업체가 2.9조원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장 신축 시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라 기업 투자보조금의 최대 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기로 발표하였다.(2024.2월)

###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가점유비율 및 주택보급률(2022년)



자료: 국토교통부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 해당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영세 건설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PF대출 부실 등의 경로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지원<sup>16)</sup>은 건설사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